

2020년 26회 1차 시험 『민법』 총평

담당교수 : 이혁준 교수 (야간반)

I.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이혁준입니다.

먼저, 힘든 과정을 잘 버티고 이겨낸 수험생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 민법 기출문제에 대한 총평과 2021년 시험 출제예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I. 총 평

< 개괄적 평가 >

- ① 우선 금년 민법 시험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출판례와 최신판례 및 강의시간에 누차 강조하고 짚어드렸던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간혹 지엽적이고 생소한 판례도 나왔지만 정답을 결정하는 데에 일체의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에도 변함없이 지문이 매우 길어서 시간안배에 실수할 수 있었는데, 형식적으로나마 시간이 20분 더 늘어났다는 점과 이미 지문이 길다는 점은 주지하고 있었던 사실이라는 점, 그리고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시간에 이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문을 포인트별 패턴식으로 읽을 수 있도록 훈련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건대,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 ② 금년 시험은 판례의 결론을 넘어 그 법리까지 좀 더 정치하게 알고 있는지를 출제함으로써 난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출제되었던 과거의 유형에 맞춰서 어설픈게 대비했다면 점수도 마찬가지로 어설픈게 나올 것이고, 좀 더 정밀하고 명확하게 대비했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문 중에는 민법적 사고만 있더라도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 ③ 다만 작년과 같이 Box형 문제나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으나, 수험생 모두가 중요하다고 보는 주제에 대해서는 2문제 이상을 묻는 식으로 출제의 집중이 있었습니다.
- ④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해서 볼 때,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대처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시험장에서는 항상 실수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결론적으로 **40문제 중 5문제 정도 틀리는 것으로 막았다면 합격은 무난하다고** 봅니다.

< 개별적 평가 및 예상 >

(1) 주제별 전체적 평가

- ① 금년 시험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A급 주제를 중심으로 출제하되, 조문의 비중은 낮아지고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며, 판례도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A급 이상의 판례 비중이 높게 출제되었습니다. 조문 문제는 총 200개 지문 중 10개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② 특히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제도나 주제에 관한 내용을 각 지문으로 구성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취소권과 가족법의 법리가, 점유권과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권리)질권과 일괄경매청구권 및 물상보증이, 물권적 청구권과 공유의 법리가 각각 한 문제에서 지문으로 구성되어 출제되었습니다. 간명히 말한다면 민법의 단편적인 사고보다는 제도 상호간의 관련성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③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중요한 판례와 종합적·전체적인 민법적 사고를 갖고 있는지를 묻는 형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수험생은 이러한 형식의 변화를 감지하여 2021년 시험을 지혜롭게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영역별 평가

영역별로 보면,

① 작년에는,

민 총	채권법	물권법	가족법	Box·사례형
10문제	15문제	10문제	5문제	3문제

② 이와 달리 금년에는,

민 총	채권법	물권법	가족법	Box·사례형
8문제	14문제	12문제	6문제	X

작년보다 민법총칙의 비중이 낮아졌고, 아래에서 보겠지만 채권각론의 비중이 낮아졌으며, Box형이나 사례형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현상은 아니므로 2021년에도 올해와 같은 형식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겠고, 오히려 내년(2021년)에는 작년(2019년)의 형식과 유사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3) 문제 내지 지문의 구성면에서의 평가

1) 조문과 판례의 비중 등

조문의 비중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낮아지고, 판례가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조문형식의 지문은 총 200개 지문 중 대략 10개 정도였습니다. 또한 지문의 길이는 상당히 길었으나 이는 작년과 같은 현상이었고, 이런 현상은 이미 고착되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연습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훈련이 되었어야 했고, 시간이 부족했다면 실력이 부족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쉽고 씁쓸한 말이지만 이것이 '팩트'입니다.

객관식 지문은 어차피 판결요지를 지문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례를 공부할 때 키워드나 핵심 문장 등을 익숙하게 만들었어야 했고, 일정한 패턴으로 읽어갈 수 있도록 정리했었다면 시간부족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년 1차 시험을 위해서도 수험생은 조문으로 시작해서 판례의 키워드나 핵심 요지를 최대한 이해하고 정리하여, 포인트별 패턴으로 지문을 빠르게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고 가장 현명한 수험방식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2) 영역별 주제(쟁점)의 구성 - 중요주제(쟁점)별 개괄적 제시

<p>민 총 (8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의칙과 파생원칙 ▶ 법인 ▶ 중중 ▶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제103조와 제104조)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무효와 취소 ▶ 소멸시효(2문제) <p>※ 금년에 대리파트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p>
<p>채권총론 (10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손해배상책임(3문제) ▶ 채권자취소권(2문제) ▶ 채권양도 ▶ 변제 ▶ 상계 ▶ 다수당사자 법률관계(2문제) <p>※ 금년에 채권자대위권이 독립적인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p>
<p>채권각론 (4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제 및 해지 ▶ 계약금 ▶ 사무관리 ▶ 불법행위 <p>※ 금년에 동시이행항변권, 임대차, 도급, 위임, 부당이득이 독립적인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p>
<p>물권법 (12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권변동 ▶ 등기의 추정력 ▶ 점유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구분건물 ▶ 취득시효 ▶ 공유 ▶ 지상권 ▶ 전세권(2문제) ▶ 유치권 ▶ 권리질권·일괄경매청구·물상보증 <p>※ 금년에 명의신탁과 저당권이 독립적인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p>
<p>가족법 (6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2문제) ▶ 입양 ▶ 상속재산분할 ▶ 상속회복청구권 ▶ 유류분 및 기여분

이렇게 본다면, 중요한 주제나 쟁점에 집중해서 2문제 이상도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출제되었던 주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출제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작년의 'Box형 문제'나 '사례형 문제'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으나, 이 또한 내년에는 출제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Ⅲ. 글을 마무리하며

매번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시험의 당락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수험생 모두 그 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므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이므로 보다 알찬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시험이 1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성적이 많이 부족한 경우이든 컷라인 근처라서 매우 불안하든 발표 때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내년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의 합격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회의 여신을 붙잡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여신의 뒷모습만 보지 않기를 바라며, 긴 한숨에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해야 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건강상의 문제로 또는 가정의 문제로, 때로는 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충분히 잘 헤쳐 나왔던 여러분이기에, 반드시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혁준 올림

2020년 26회 1차 시험 『민법』 총평

담당교수 : 이준현 박사 (주간반)

2020년 법무사 제1차 민법 기출문제는 대체로 평이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기출문제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2~3개 정도는 쉬웠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의 CIVIL LAW -조문판례를 중심으로- 와 문제풀이 및 최신판례특강에서 다루었던 것이 거의 다 그대로 출제되었으며, 많은 수강생들이 고득점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래 이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제1차 민법 기출문제를 영역별, 형식별로 분석해 봅니다.

영역별	민법총칙 8문항 물권법 12문항 채권법 14문항 친족상속법 6문항
형식별	옳은 것 고르기 2문항 옳지 않은 것 고르기 38문항 박스형식과 사례형식 문항은 없음
판례와 조문의 비중	판례를 묻는 지문이 180개 지문 조문을 묻는 지문이 20개 지문

진인사대천명!!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법무사 시험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법학박사 이준현 올림